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 책임작성자: 배 정 호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 공동작성자: 박 영 호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전 병 곤 (국제관계연구센터 연구위원)

I. 문제제기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0년 5월 3-7일(4박5일) 약 4년여 만에 비공개적으로 중국을 전격 방문함.
 - 대련, 천진의 항만시설, 공장, 경제기술개발구 등 방문
 - 후진타오 국가주석 등 중국의 최고 고위층과 회담
-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은 지난 방중과 상당히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김정일의 방중목적, 중국의 초청 의도 등과 관련, 국내외의 높은 관심이 표명됨.
- 북한은 화폐개혁이후 한계상황에 이른 경제난의 극복, 3남 김정은 후계체제의 원활한 이행 등 지극히 중요한 현안에 직면해 있음.
- 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따른 재개를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음.
 - 중국,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의 재개 분리 시도
- 그러므로, 본 보고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난 방중 사례를 살펴 본 뒤,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배경 및 목적, 중국의 초청 배경 및 목적, 김정일 방중의 결과 등을 분석하고,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고찰함.

II.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사례

1. 사례

가. 2000년 방중

- 김정일 위원장은 5월 29-31일(2박3일)에 집권 후 최초로 베이징을 비공식 우호 방문했음.
 - 주요 수행원: 조명록, 김영춘, 김국태, 김용순, 김양건
- 김 위원장은 장쩌민(江澤民)과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사전 협의 및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 후, 중관촌(中關村)의 IT산업 시설을 시찰하였음.
 - 후진타오(胡錦濤), 리펑(李鵬), 주룽지(朱鎔基), 리루이환(李瑞環) 등과 접견
- 소원했던 중·북관계의 전통우호협력관계로의 회복, 중국의 경제지원 제공, 남북정상회담(2000.6.15) 개최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둠.

나. 2001년 방중

- 김정일 위원장은 1월 15-20일(5박6일)에 상하이와 베이징을 비공식 우호 방문해 장쩌민과 정상회담을 가짐.
 - 주요 수행원: 김영춘, 연형묵, 김국태, 정하철, 강석주, 김양건, 박송봉, 현철해, 박재경
 - 주룽지, 후진타오, 웨이젠싱(尉建行) 등과 회담
- 북한의 방중 목적은 중국의 개혁·개방 현장 답사 및 경제협력·지원 획득임.
 - 김정일은 상하이의 발전상을 ‘천지개벽’으로 표현하며 높이 평가
- 방중결과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및 9월 신의주 특구 발표에 반영됨.

다. 2004년 방중

- 2차 북핵 위기 속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4월 19-21일(2박3일) 베이징과 톈진을 비공식 우호 방문함.
 - 주요 수행원: 김영춘, 박봉주, 연형묵, 강석주
 - 중국의 최고 권력기구인 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9인을 모두 접견
- 중·북 양국은 양국관계의 강화, 북핵문제 및 6자회담 재개, 경제협력에 대해 합의함.
 - 16자 방침(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 제시
 -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소,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6자회담 재개
- 북한은 중국의 신지도부와 당 대 당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복원 및 중국의 경제 지원 및 협력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참여를 유도해냄으로써,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과시



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라. 2006년 방중

- 후진타오의 방북(2005.10)에 대한 답방 차, 김정일은 1월 10-18일(7박8일) 우한, 이창, 광저우, 주하이, 선전과 베이징을 비공식 우호 방문함.
 - 주요 수행원: 박봉주, 강석주, 박기남, 이광호, 노두철
 - 후진타오, 원자바오(溫家寶) 등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 접견
- 방중의 주요 목적은 미국의 대북 압박에 대응, 중국의 외교적·경제적 지원을 획득하는데 있음.
-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6자회담의 난관을 공동으로 극복하고 우호협력관계를 확대할 것’에 합의함.
-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발전경험을 북한에 원용하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호혜협력·공동발전’의 목표 아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
 - 후진타오는 “북한이 본국에 적합한 발전노선을 탐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표명
 - 김정일은 중국식 현대화 건설과 개혁·개방의 성과를 높이 평가

2. 특징

- 김정일의 4차례 방중은 모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음.
 - 안전문제와 비공개를 위한 비공식 우호 방문의 성격
 - 중·북 전통 우호협력관계의 증진 강조
 - 북한의 중국 개혁·개방 현장 답사 및 중국의 경제무상지원 제공
- 중·북 정상회담의 결과는 양국 우호관계의 강화, 경제지원 및 협력 등으로 나타남.
 - 이는 북한문제 전반의 안정적 관리와 영향력 확대·과시라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체제유지에 필수적인 경제·외교적 지원 획득이라는 북한의 전략적 이익이 일치된 결과
- 다만, 중·북 협력은 양국이 상호 완전한 신뢰형성 및 공동이익·공동목표에 기반하기보다 상호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도 존재함.
 - 대표적 예로, 2006년 방중 이후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단행



< 표 1 > 김정일 위원장의 역대 방중 사례

	일정	성격	주요 목적	주요 의미	결과
1차	2000.5.29-31	비공식 우호방문	남북정상회담 사전협의	김정일 집권 이후 최초 방중	남북정상회담 개최, 경제지원 및 협력
2차	2001.1.15-20	비공식 우호방문	개혁·개방현장 답사	김정일 중국개혁·개방 성과 인식 및 수용	7·1경제관리 개선조치, 9월 신의주특구발표, 경제지원 및 협력
3차	2004.4.19-21	비공식 우호방문	중국의 신지도부와 협력관계 구축	신지도부와 협력관계 구축, 당 대 당 전통관계 복원	경제지원 및 협력, 6자회담 재개
4차	2006.1.10-18	비공식 우호방문	경제·외교적 지원 획득	우호협력관계 증진, 경제협력 원칙 수정	경제원조에도 불구하고, 북한 미사일 및 1차 핵실험 단행

Ⅲ. 김정일 방중의 배경과 목적

- 안정된 후계체제의 구축
- 체제유지를 위한 중국의 지원 획득

1. 체제유지를 위한 중국의 경제적 지원 요청

- 북한은 가중되는 인플레이의 해소, 계획경제체제의 회복 등을 위해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을 단행 하였으나, 계획경제체제로의 복귀는 실패하였고, 식량가격 등 물가의 폭등으로 시장 증산층, 하층민 등 주민들은 경제생활에 상당한 고통을 겪음.
- 북한당국은 시장을 대신하여 소비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체제능력의 한계를 노정함.
- 그러므로, 김정일의 방중은 체제유지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투자 등 경제지원을 요청·확보하기 위함임.
 - 김양건, 대련에서 중국측 기업들에게 ‘대풍그룹’에 투자 제의
 - 김정일, 대련의 항만시설·공장, 천진의 항만시설·경제기술개발구 시찰
 - 김정일, 후진타오 주석에게 대북 투자를 공개적 요청

2. 안정된 후계체제의 구축에 대한 중국의 지원 확보

-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현안은 포스트 김정일시대를 대비한 후계체제의 구축임.
- 북한 당국은 이를 위해 화폐개혁을 통해 중앙권력의 통제력 회복, 후계체제 구축의 위협 요소들의 제



- 거 등을 추구함.
- 적대적 하층계층의 시장경제를 통한 부의 축적과 정치경제적 성장은 위험요소의 증대
- 그 결과, 정치적 성분은 하위계층이나 경제적으로 중산층인 시장상인의 경제적 기반이 매우 약화됨.
 - 그러나, 경제적 몰락으로 절망과 고통에 빠진 시장 중산층을 비롯하여 북한주민들의 당국에 대한 불만, 비판이 매우 높아졌음.
 - 국경지역을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장군님’ 등의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
 - 현재 북한 주민은 지난 ‘고난의 행군’ 시절과 다름.
 - 경제난에 따른 체제의 불안정
 - 북한 당국은 ‘50일 전투(2010.1.2-2.20)’, ‘국경통제’, ‘공민증 재발급’ 등 주민들에 대한 사상, 정보 등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의 의식주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음.
 - 10월의 당창건 65주년 행사 때까지, 주민들의 생활경제 개선을 위한 성과 절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습후계체제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지지, 지원은 안정된 후계체제의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함.
 - 사회주의국가에서의 권력세습을 비판했던 중국의 ‘암묵적 이해 및 지지’ 획득

IV. 중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 배경 및 목적

1. 중국의 대북정책 기초

-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주변 환경 창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영향력 확대라는 중국의 대외전략 기초에서 볼 때, 중국의 한반도정책 목표는 ‘중국의 현대화를 위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와 ‘대한반도 영향력 강화를 통한 대국으로서의 입지 강화’로 압축됨.
- 지금까지 중국이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이 있는 중국의 대북정책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전통우호협력관계의 중시
 - 16자 방침: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
 - ‘호혜협력, 공동발전’, ‘정부인도, 기업참여, 시장운용’ 원칙하에 경제협력관계 확대
 - 북한의 합리적 안보우려에 대한 지지
 -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 대미·대일관계 정상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자주평화통일,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세계적 공평·합리적 질서 유지 등을 지지
 - 북한 핵 보유 반대, 북한의 6자회담 탈퇴 반대



- 이상의 내용과 중국의 한반도 정책 목표를 고려했을 때,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평화와 안정,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공식 목표로, 북한체제(김정일 정권)의 유지·지원, 대북 영향력 강화를 비공식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중 북한의 평화와 안정이 정책적 최우선 순위

2. 초청 목적

가. 북한의 안정적 관리

-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으나, 중국의 주변지역인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 군사적 개입이나 강력한 제재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대북 포용정책을 선호함.
 - 중국은 대북제재나 압박이 북한의 핵정책을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극단적 조치를 자극하거나 혹은 북한정권의 붕괴를 야기하게 되어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려
 - 게다가 잠재적 경쟁국인 미국, 일본 등 해양세력의 압력을 막아 주는 북한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면서 북한체제의 유지 및 영향력 확보에도 노력
- 특히,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제·압박’보다 ‘설득·회유’정책이 북핵 등 북한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상회담 성사를 추구해왔음.
 - 김정일 위원장을 작년부터 초청
- 중국이 김정일 위원장의 초청을 통해 대북 관계를 강화하는 목적에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 추구를 사전에 억제시키려는 의도도 있음.
 - 중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주변 환경이 필요
 - 특히, 금년은 상하이 엑스포(4-10월), 광저우 아시안게임(11월)의 성공적 개최가 긴요

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유도

- 6자회담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중요한 외교적 발판이므로, 중국은 2차 북핵 실험 이후에도 미·북 양자 사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재 역할을 수행함.
 - 절충안, 미·북접촉 → 예비회담 → 본회담 제시
- 따라서, 중국이 김정일을 초청한 주요 목적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화국면을 조성하는 것임.
 -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대가로 경제협력 및 지원, 세습후계구도의 암묵적 승인 등 제공

다. 북한 후견인으로서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 과시

- 중국은 김정일의 방중을 통해 양국의 전통 우호협력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함.



- 정상회담 과정에서 김정일에게 국제사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북한의 의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
-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대미외교의 전략적 자산 및 전략적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하고자 함.
 -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주도권 확보에 전략적 활용
 - 북한이 안보불안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와의 대화·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란 ‘미국책임(역할)론’의 제기 근거로 활용

라. 전략적 경제협력 추구하고 개혁·개방 유도

- 중국이 북한과의 경협을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이유에는 6자회담 참여에 대한 대가, 북한체제의 유지·지원을 통한 대북 영향력 확대 이외에도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목적으로 함.
- 동북3성 개발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중국은 인접국인 북한과의 안정적인 경제 협력이 필요한 실정임.
- 특히, 중국은 랴오닝성 ‘연해경제벨트 개발계획(’09, 7)’과 지린성 ‘창·지·투(長·吉·圖) 개발개방 선도 구 계획(’09.8)’을 비준한바, 북한과의 단둥-신의주, 투먼-나선 지역 연계개발 협력을 구체화 하는 실질적 협의가 필요함.
 - 신압록강 철교 건설, 나선지역 1호 부두 사용권 획득

V. 김정일 방중에 대한 마일의 시각

1. 미국의 시각

- 미국은 중·북 정상회담과 관련, 사전에 중국 측과 협의했으며 특히 6자회담 관련 미국 측의 입장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함.
- 미국은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6자회담의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함.
 - 한국의 조사에 대해 전폭적 지지 부연
-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하며, 의미 있는 대화를 갖기 전에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긍정적인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입장임.
 - 북한의 비핵화 의무 준수 및 약속한 공약의 이행이 미·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전제



2. 일본의 시각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첫 기착지로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항만도시 대련을 선택한 것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자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임.
- 일본 언론들의 분석에 따르면, 김정일 방중의 최대 목표는 안정된 후계체제의 구축과 체제유지를 위한 중국의 지원 획득임.
 - 김정일은 이번 방중을 통해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중국의 ‘암묵의 이해’를 얻음.
- 6자회담의 재개와 관련, 오카다 외상은 기자회견(2010.5.7)을 통하여,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북한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의 조기 재개는 곤란하다고 표명함.
 - 북한의 소행이 확실해 질 경우, 6자회담의 장기간 중단도 시사

Ⅵ. 김정일 방중의 결과

1. 주요 내용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5월 5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5월 7일 보도를 통해, 북한 노동신문은 5월 9일 사설을 통해 정상회담을 포함 김정일 방중 결과를 보도함.
- 김정일 위원장은 이번 방중 기간 중 요녕성의 심양, 대련, 천진을 시찰하고 베이징의 박오생물유한공사를 참관함.
- 다음은 후 주석과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신화통신의 보도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가. 후 주석의 발언 내용

(1) 김정일의 방중에 대한 환영 인사와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 강조

- 김정일의 방중을 환영하고, 칭하이 위수현 지진 발생에 대한 조전에 감사하며, 북한이 상하이 엑스포에 참가하고 지지를 표명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함.
- “중·북의 전통적 우의는 양당과 양국 인민들의 고귀한 재산임. 양국 우호관계를 시대의 흐름과 함께 발전시키고 대대손손 계승하는 것은 양국이 가진 공통된 역사적 책임임.”



(2) 양국관계의 새로운 단계 발전을 위한 5개 분야 협력을 제안

- 첫째, 고위층 교류의 지속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
 - 양국 지도자들의 상호 방문과 특사 파견, 구두 친서 전달 등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
- 둘째, 전략적 소통의 강화
 -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양국 내정 및 외교에서의 중대문제와 국제 및 지역 정세, 국정 운영경험 등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사소통
- 셋째, 경제무역 협력 심화
 - 양국 정부의 담당부처는 경험 심화를 위해 진지한 논의 추진
- 넷째, 인문교류 확대
 - 문화, 교육, 스포츠 등 각 분야 특히 청소년 교류의 강화를 통해 양국간 전통적 우의를 대대손손 이어지도록 노력
- 다섯째,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의 협력 강화,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

나.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

(1) 후 주석의 5가지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

(2) 양국의 전통적 우의 관계 지속 강조

- 세대를 넘어선 지속적인 “양국의 선대 지도자들이 손수 맺어 키워낸 전통적 우의 관계는 시대의 풍파와 시련을 겪었지만 시간의 흐름과 세대교체로 인해 앞으로 변화가 생겨서는 안 됨.”
- “북한의 당과 정부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각도에서 양국 관계를 수호하고 양국 관계를 계속 전승해 나갈 것임.”

(3) 중국 기업의 대북투자 기대

- “호혜공영의 원칙 아래 북한은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를 환영하고 양국 간 실무협력 수준을 제고하기를 희망”

(4) 6자회담 관련 기존 입장 표명

-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는 북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유관 당사국과 함께 노력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
- 중국이 6자회담 진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공헌을 한 것을 높이 평가



(5) 후 주석의 북한 방문 초청

- 편리한 시기에 북한을 다시 한 번 방문해 주기를 바람.

2. 특징

- 이번 김정일의 방중은 2000년대에 들어 5번째 방문으로, 2009년 11월 30일 단행된 화폐개혁의 후유증으로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6자회담이 계속 지체되는 상황에서 금년 초부터 방중 가능성이 주목되어 왔음.
 - 특히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태가 발생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진행되었음.
- 김정일은 이번 방중 기간 중에도 대련, 천진 등 중국 경제 발전의 주요 지역을 방문하고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안내로 생명공학단지를 방문하였음.
- 중국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최대한의 의전으로 대접, 양국 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과시함.
 - 후진타오 국가주석,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최고지도부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이 모두 김정일과 만남
- 또한 북·중 정상은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과시하였음.
- 김정일은 중국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과시하면서 후계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향후에도 양자관계가 변치 않고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함.
 - 북한 노동신문은 5월 9일 사설에서 “중조친선을 대를 이어 빛내여 나가는 것은 중국당의 변함없는 의지이고 결심”이라면서 젊은 세대들이 이에 대한 교양사업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강조
-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의 5개 제안을 통해 양자관계의 강화·발전 속에서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내정과 외교상 중대 문제’에 대한 협의를 요구함.
- 이번 방중에서 김정일은 중국의 대북 투자를 강조했으나,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경협 강화 속에서도 양측의 속내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일의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환영” 언급을 미보도
-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 여부가 중대 관심사였으나,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기존의 원칙적 입장 표명 외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으며, 이는 북·중간에 다소의 입장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신화통신은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는 북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유관 당사국과 함께 노력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보도했으나,
 - 노동신문은 “9.19 공동성명의 입장에 따라 한반도의 비핵화목표를 실현하기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보도



VII.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1.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의 한계

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중국 지원의 한계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경제난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시사함.
- 현재 북한의 식량난은 ‘고난의 행군’ 시절과 비슷한 상황임.
 - 단천 내륙지방의 식량난은 매우 심각
-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지도부로부터 대북 경제지원 및 투자를 확보하는데 기대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함.
 - 중국지도부의 대북 경제지원 및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 불표명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일 단축 귀국

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의 국면 전환 한계

- 북한은 6자회담 관련 중국 측의 지원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 관련 국면을 전환하려 하였으나, 예상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음에 따라, 6자회담 복귀를 불투명하게 표명함.
- 북한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유리한 환경의 조성’만 희망하였고, 6자회담 복귀와 관련된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음.
 - 평화협정을 염두에 둔 전략적 표현

2.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강화 노력과 중·북관계의 한계

-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통하여 대북 영향력을 가시화하였지만, 방중결과를 분석하면 중·북관계는 한계를 노정함.
- 즉,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을 위하여 대북 지원과 압박을 동시에 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6자회담 예비회담에 관한 의사조차 표명되지 않음.
 - 한·중·일 외교장관 경주회담(5.15)에서 중국은 ‘미·북 양자대화 → 6자회담 예비회담 → 6자회담 본회담 재개’라는 기존의 안을 재차 제시
- 중·북 정상회담 직후, 중·북관계 발전에 관한 선전이나 대단위 경제지원 발표 같은 것도 없음.
- 게다가, 김정일의 중국 방문 직후, 북한은 자체 기술로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대내외에 공표함(5.12).



- 이에 대해, 중국은 매우 이례적으로 차이나데일리, 환구시보 등을 통해 부정적 시각 표명
- 북한 핵문제 관련, 중국의 영향력 한계 노정

3. 한국의 대중 전략대화의 체계적 강화

- 중국은 북한에 대해 내정 및 외정 등에 관한 ‘전략적 소통’의 강화를 제안하며, 중·북관계를 ‘시대의 흐름’과 함께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며, 대북 영향력의 강화 노력을 추구함.
- 이는 중국이 ‘북한 후견인’으로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며, 중재자로서의 전략적 역할을 추구해 갈 것임을 시사함.
- 그러므로, 한국도 대중 전략대화를 개별적 차원 이상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임.
 - 한·중의 전략적 공감대 및 이해의 확대

